

순천향과 32년 인연, '인술'로 행복 찾다



봄길

—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표지설명

순천향대 서울병원과 32년 인연을 맺은 70세 박명심 환자의 협심증으로 인한 응급한 상황에서 박영우 흉부외과 교수의 성공적 수술로 행복을 되찾게 되어 '환자와 닥터'가 함께 환하게 웃는 감동을 담았다.

순천향

2022.03+04

Vol. 70 통합의료원보



C O N T E N T S

2	SPECIAL	'2022년 순천향 한마음대회'
6	LOVE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흉부외과 박영우 교수와 박명심 환자
8	HISTORY	'서석조SCH플랫폼'
10	FOCUS	순천향 아카이브
14	DOCTOR	서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심장내과 교수
18	VISIT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핵의학과'
22	WITH	서임교 (췌)에스엘테크 대표
24	ISSUE	서울병원, 시기반 비대면 환자 돌봄 서비스 국내 최초 제공
26	ISSUE	부천병원, '모두가 신뢰하는 안전한 병원' 만든다
28	ISSUE	천안병원의 '독서열풍'
30	ISSUE	구미병원, 조기 위암, 내시경적 점막하절제술 성공
32	KNOWLEDGE	수지 궤양 환자 '보센탄' 치료 연구 발표
34	KNOWLEDGE	'선천 심질환'
36	KNOWLEDGE	'내측경골 피로증후군'
38	KNOWLEDGE	낙상과 골절
40	EQUIPMENT	구미병원 의료장비, '바이오피드백 장치'
42	NEWS	

「순천향」 통권70호

발행일 2022년 3월 21일 발행인 서유성(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편집위원 이미중, 배지연, 이상원, 유채민
연락처 02-709-9593 www.schmc.ac.kr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59 기획·편집·디자인 피엔플러스 02-2269-5689 인쇄 (주)대한프린테크

'2022년 순천향 한마음대회'

서교일 이사장, "지속가능한 병원 위해 끊임없는 혁신 필요"

'2022년 순천향 한마음대회'가 2월 18일 순천향대 부천병원 향설대강당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렸다. '순천향 한마음대회'는 매년 학교법인 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및 중앙의료원, 서울·부천·천안·구미병원의 주요 보직자가 모여 순천향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각 기관의 경영 전략과 성과를 공유하며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자리다.

together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일하는 직장 환경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3년 만에 열린 이번 행사는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김승우 순천향대 학교 총장, 서유성 중앙의료원장, 황대연 순천향대 총동문회장, 이정재 서울병원장, 신응진 부천병원장, 박상흠 천안병원장, 정일권 구미병원장 등 최소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주요 발표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새 병원 건립공사 경과보고, ▲순천향대학교 및 부속병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순천향 2022(순천향대학교), ▲GROW-UP TOGETHER 2022(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새로움을 만드는 하나(순천향대 서울병원), ▲인간사랑 20년, 더 큰 꿈 100년(순천향대 부천병원), ▲희망을 노래하는 행복한 일터, 순천향(순천향대 천안병원), ▲코로나의 위기를 기회와 희망으로(순천향대 구미병원) 순으로 진행됐다.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은 "요즘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재정 안정성을 피하고, 확보된 재정을 활용해 대학과 병원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지난해 대학이 '메타버스 입학식'을 개최했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고등교육의 혁신 모델을 만들고, 신의료 기술을 의료 현장에 적용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혁신 대학과 병원이 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또, 젊은 인재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즐겁게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최상의 진료·연구역량과 조직의 소통 강화로 새 순천향 만들 것



서울병원은 이번 한마음대회에서 "최상의 진료, 연구역량 강화, MZ세대와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로 '새 변화, 새 순천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진 진료부원장은 "혁신보다는 작지만, 가치 있는 목표를 세웠다"며 "교직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꿈꾸고 희망하는 계획을 이루고, 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전환'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Tri-Shift라는 단어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진료 부문에서는 진료서비스 개선과 경영의 선순환을 위해 진료환경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자보건센터 1,2층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추가로 부족한 진료공간과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연구 부문은 연구부원장 직제를 신설하고, ARO(Academic Research Office-임상시험맞춤형수탁서비스)를 설치해 임상연구를 위한 인력과 행정시스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상연구에 초점을 맞춰 연구인력과 시스템을

지원하고 AI, 스마트병원, 의료기기 등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수평적 조직문화는 간호환경 개선이 첫 번째 목표다. 또한 조직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MZ세대와의 소통이다. 기존의 직원들이, 새롭게 입사하는 MZ세대와 마음으로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병원장부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꼼꼼하게 챙긴다는 계획이다. 인사제도도 요즘 가장 중요하게 회자 되는 공정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언택트 업무환경도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특히 여러 가지 위협에 노출된 직업 특성상, 교직원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한 병원 문화와 환경을 만드는 데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대외적으로는 서울의 중심인 용산구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도 활발히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2022년 순천향 한마음대회'가 18일 순천향대 부천병원 향설대강당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인간사랑 20년, 더 큰 꿈 100년'

부천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지난해 개원 20주년을 맞이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한 해를 보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4주기 연속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었으며, '코로나19 전담거점병원' 및 '코로나19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사업'에 참여해 코로나19 국가적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했다. 또, 보건복지부 주관 제2차 환자경험평가에서 '전국 1위'라는 눈부신 성과를 달성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결과 '전 영역 1등급'을 달성하는 등 경기 서부 권역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중증환자 치료에도 앞장섰다. 문중호 순천향대 부천병원 진료부원장은 올해 3가지 새 경영목표를 중심으로 부천병원 2022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바로 '최상의 중증환자 거점병원', '환자안전이 최우선인 병원', '감염관리를 선도하는 병원'이다. 문 진료부원장은 중증 암·혈관 질환 환자 진료 증대, 장기이식센터 활성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중증환자 중심 병원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총괄처, 중대재해예방팀, 안전관리실 장치를 신설하고, 지속적인 중대재해 예방 관리 목표를 설정해 환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환자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중증치료병상'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지역 협력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문중호 진료부원장은 "지난 20년간의 성과와 노력을 바탕으로 더 큰 꿈을 안고 향후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부천병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병원

'희망을 노래하는 행복한 일터'

천안병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았다. 350명의 직원에 150병상으로 시작한 천안병원은 현재 2200명의 교직원과 900병상에 이르는 중부권 최종 거점병원으로 성장했으며, 지난 40년의 성장을 발판삼아 더 큰 도약과 위대한 항해를 준비하고 있다. '인간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더해 "국민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리라"는 설립자의 신념을 오롯이 구현해가는 가운데 ▲자부심 넘치는 병원, ▲성장하는 병원, ▲흥이 돋는 병원, ▲의료의 상향표준화를 선도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신바람 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흥 연구소'를, 교직원들의 심신 건강을 돌보기 위해 '심신건강상담소'도 신설했다. 또 책을 통한 소통, 휴식, 감성충전을 위해 북케이션(BookCation)도 진행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더 안전한 병원 만들기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천안병원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새병원과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새병원은 현재 1층과 지하층 공사가 한창이고, 감염병전문병원은 설계를 마쳐가고 있다. 2024년 동시 개원 예정이다. 개원하게 되면 의과대학, 의생명연구원(SIMS)과 더불어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 의료의 중심이 되고,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 스마트병원 구축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해 인간과 기술이 교감되는 디지털휴머니즘 완성을 통한 미래형 상급종합병원의 본모기를 제시할 계획이다. 3년째 진행되고 있는 혁신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도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연구중심병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코로나의 위기를 기회와 희망으로

- 구미 순천향 Covid-19 730일간의 여정

구미병원

구미병원은 코로나 팬데믹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 내 완벽한 감염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민들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호 하는데 집중하였다. 사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과 시설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환자 조기발견과 유행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인 방역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폐렴선제병실, 중증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재택치료, 백신접종센터 등 감염병 관리 전반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구미병원내 자체 매뉴얼을 강화 시키고 집단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TF대책 위원회 운영과 잠시 멈춤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구미시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무료 진단검사를 진행하여 지역민들이 불편함 없이 검사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양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찾는 것에 동참하기 위해 지역 내 대학병원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구미병원은 오미크론 변이 대 확산 등으로 인해 다소 미뤄졌지만 외래관을 증축하고 신관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등 대대적인 새 단장에 들어간다. 질환 중심의 전문센터와 클리닉 재배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확대 등을 통하여 내원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진료환경 개선,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경북 중서부권 최고의 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나아 갈 것이다.



“순천향과 32년 인연, 살려 주셔서 감사해요”

‘협심증’ 박명심 환자, 응급 대수술로 건강회복

글_이미종 사진_최종엽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찾아오는 병들이 많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심장관련 질병은 자칫하면 순간에 목숨을 잃기도 한다. 협심증도 그런 질병 중 하나다. 경우에 따라 약물치료도 가능하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 대수술이 필요하기도 하다. 생사를 오가는 수술이 될 수도 있다. 박명심 씨(70세)는 지난해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협심증 판정으로 대수술을 받았다.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성공적 수술로 건강을 회복했다. “이제 다시 남편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2월 28일 본관2층 흉부외과 외래 박영우 교수 진료실에서 박명심 씨(70)를 만났다. 조금 야위긴 했지만 표정만은 밝았다. 사연을 듣기 위해 함께 진료실에 들어서자 대뜸 박영우 교수를 향해 “선생님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허리를 깊게 숙이며 인사를 했다. 박영우 교수도 “건강하게 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화답했다.

박 씨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과의 인연은 생각보다 깊었다. 현재 70세인 박 씨는 38세부터 순천향과 인연을 맺어 왔다. 이런 긴 인연이었지만 이번과 같이 생사를 다툰 적은 없었다고 말한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박영우 흉부외과 교수로부터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았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없이 다니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때론 가슴을 쥐어 짜는 듯한 통증도 느꼈어요.” 이에 박 씨가 급하게 찾은 곳이 바로 순천향대 서울병원이다. 평소 그녀의 주치의인 박병원 심장내과 교수로부터 운동부하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협심증을 진단받았다.

심장은 크게 3개의 심장혈관(관상동맥: coronary artery)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받고 활동한다. 동맥경화증, 혈전증, 혈관의 수축 및 연축(spasm) 등의 원인에 의해 3개의 관상동맥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급성이나 만성으로 협착(수축 등의 원인에 의해 혈관 등의 통로의 지름이 감소하는 것)이 일어나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혈류 공급이 감소하면서 산소 및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심장근육이 이차적으로 허혈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협심증이라고 한다.

약물치료로 가능한지,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혈관조영술을 받았다. 3곳이 막혔는데 2곳은 협착이 심하지 않아 약물치료가 가능했다. 하지만 오른쪽 관상동맥이 문제였다. 특히 혈관이 약하고 폐쇄도 심각해 스텐트 혈관중재시술 치료가 어려웠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위급한 상태였다. 이에 연락을 받은 박영우 흉부외과 교수는 지체 없이 달려와 수술에 임했



다. 가슴을 열고, 종아리의 혈관을 떼다가 심장의 관상동맥을 이어주는 장시간의 대수술을 이었지만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남편과의 약속 지킬 수 있어 늘 감사하며 살게요”

“정말 그때는 이제는 죽는구나 싶었어요. 금식을 했는데도 엄청 많이 토하고,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답답한지...생각만 해도 지금도 끔찍해요. 교수님, 근데 그 수술이 갈비를 톱으로 자른 거죠?” 박 씨의 물음에 박영우 교수는 “하하 네, 전기톱으로 흉골을 자르고 수술을 한 겁니다. 이제 두 달이 좀 지났으니 아직은 숨이 차실 거예요.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더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환자분께서 잘 이겨내 주신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집이 빌라 3층인데 수술 후에는 서너 번 쉬어야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번 정도만 쉬면 올라갈 수 있어요. 입맛도 없었는데, 그것도 많이 돌아오고 식사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젠 좀 살만하네요(웃음).” 박 씨는 18년 전 남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냈다. “그 때 40년 있다가 따라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뻔 했어요. 이제 22년 남았네요.” 박 씨는 “선생님, 제가 그 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라며 물었다. 이를 지켜보던 박 교수는 “협심증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병”이라며 “수술을 받았지만 잘 관리하면서 사시면 천수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 씨는 20년 전에 장기증도 약속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99년에 장기증도 약속하고 연명 치료도 받지 않았다고 자식들한테 얘기했어요. 또 오래전부터 생명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불교 관련 재단에 매월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일밖에 모르고 살았다. 건강하게 일 할 수 있을 때까지 돕고 나누며 사는 게 소망이고, 30년 전 시작한 식당일을 이제는 아들과 함께 하고 있다”며 “아들도 건강하고 식당도 잘 났으면 좋겠어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준 의료진에게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며 웃었다. ■■■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SCH플랫폼'의 재발견

'서석조SCH플랫폼'이 이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순천향대병원·순천향대학교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의 서거 20주기와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의학 발전의 위대한 업적인 병원·대학·의학연구의 통합 시스템 구현의 토대인 '서석조SCH플랫폼'의 재발견과 이를 기념하고 후학들에게 표상이 되고자 향설박사의 일대기를 연재합니다.



한강변에 기적을 짓다!

홍수 나면 물 넘치던 습지

순천향병원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한남동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에 불과했다. 강변에는 우거진 갈대밭뿐이었고 그 사이사이로 띄엄띄엄 인가가 보였다. 여름에 홍수라도 나면 물이 역류해 마당까지 들어차고 겨울이면 뱃속까지 시린 삭풍이 휘몰아쳤다. 서 박사는 병원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우선 병원 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불광동을 비롯, 여러 장소들을 물색했다. 그러다 보게 된 땅이 바로 지금 순천향서울병원이 들어서 있는 한남동 일대다.

'이 땅이야 말로 병원의 최적지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7번지. 여러 장소를 물색하다가 최적지로 낙점한 곳이 이 상습 침수지역이라니, 서 박사의 안목은 다른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희한한 것이었다. 지금이야 한남대교를 건너 강남으로 바로 연결되고 경부고속도로의 시작점으로도 각광받고 있는 땅이지만 당시만 해도 주변에 아무 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다. 게다가 한강변에 바로 위치해 있는데다 땅이 낮아서 비가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었다. 당시 이 땅은 총무처 소유였는데 처분하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서 골치를 썩이던 땅이었다. 땅을 처분하기 위해 총무처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었다. 땅이 낮아 여름이면 물에 자주 잠기는 지역이라는 점 때문에 배수시설을 정비해주고 공중으로 지나가는 고압선도 지하로 돌려주었다. 무엇보다 땅값을 장기분할로 해준 것이 가장 컸다.

병원의 이름을 짓다

병원 개원 준비를 하면서 병원 이름을 짓는 것도 고민거리였다. 서 박사는 스스로 생각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개원을 준비하시면서 이름을 몇 개 지어오셨어요. 그 중 순천당이 가장 괜찮았지만 정당 같은 분위기가 났죠. 당시 김종필 총리께서 그러면 고향 '향'자를 넣어서 '순천향'이라고 하자고 제안했어요. 두 분이 친하셨으니 아마 자주 만나서 의견이 일치된 것 같아요." 서 박사와 오랜 시간 함께 했던 허미순 간호사의 기억이다. 김종필 전 총리는 순천향이라는 글까지 직접 써주기도 했다. 뜻은 너무 좋지만 이름을 보면 기존의 병원 이름에 비해서 뭔가 달라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다. 지역 이름이나 사람 이름, 학교 이름이 들어가는 기존의 병원 이름에 비하면 뭔가 식당 이름 같기도 하고 토속적인 느낌이 물씬 나기도 했다. 처음에는 외부에서도 이름에 대한 말이 많았다. 병원 앞에서 "성춘향 병원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천 출신이 만든 병원인 줄 알고 순천에서 직접 올라와 병원장의 고향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인술로 고향을 만들어 간다'는 순천향(順天鄉)의 뜻을 듣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교통사고 환자 전문 병원?

1974년 한남동에 순천향병원이 처음 개원했을 때만 해도 그곳은 황량한 벌판이었다. 근처에 종합병원도 하나 없었다. 개원 후



개원 당시 순천향 서울 병원은 제3한강교를 건너오면서부터 보일 정도로 웅장했다.

얼마 동안은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 환자로 인해 병원에 환자가 다소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사고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이 지역에 병원을 세웠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그만큼 환자가 많고 병원 운영이 잘된다는 이야기였다.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을 자랑하는 병원이 개원했습니다." 1974년 7월 6일 TV 뉴스에서는 순천향병원의 개원 소식을 큰 뉴스로 알렸다. 순천향 서울병원은 지금은 주변의 높은 건물과 밀집한 작은 건물들 사이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인근에 큰 건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그 위용이 대단했다. 게다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병원도 대학에서 운영하는 병원도 아니었는데 장안의 잘 나가는 스타 의사들이 다 모여 있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내에서 의과대학을 나오지 않아 학연도 없는 서 박사를 보고 잘 나가는 의사들이 속속 몰려들었다는 것은 서 박사의 높은 인품과 뛰어난 실력이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정치인, 국회의원 등 고객들도 많았기 때문에 항간에서는 VIP 병원이라는 소문도 자자했다. 1972년 12월 12일 건립부지 1004평을 확보, 1973년 4월 3일 착공을 한 후, 지하 2층, 지상 8층, 옥탑 2층 등 연건평 3300평, 병상 250 규모의 현대적 종합병원 건물을 완공하고 최

신 의료시설과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확보하여 1974년 월 6일 임시 개원을 하고 진료를 시작했다. 그후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우리나라 의료법인 1호인 순천향병원의 개원식을 1974년 7월 6일에 갖게 되었으니 이 날은 의료계 발전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제3한강교에서 봐도 '우뚝'

돌아해보면 30여년이 지난 지금의 한남동 일대는 아주 변화한 거리로 변화하였고 제3한강교가 경부고속도로 진입로가 인접해 있어 교통의 요지가 되었으나 병원건립 부지를 확보할 즈음의 이 지역은 황량한 벌판과 같은 의료 취약지역이었다. 당시 서울특별시 내의 의료기관 지역분포 상황을 살펴볼 때 불과 몇 안 되는 종합병원들도 대부분 중심가 요지에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도시의 외곽지역에 병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결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대 모험과 같은 용단과 추진 계획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최고 수준의 각 분야 전문의 40명, 간호사 122명, 약사 12명, 의료기사 27명, 행정요원 45명 등 총 306명의 구성원으로 개원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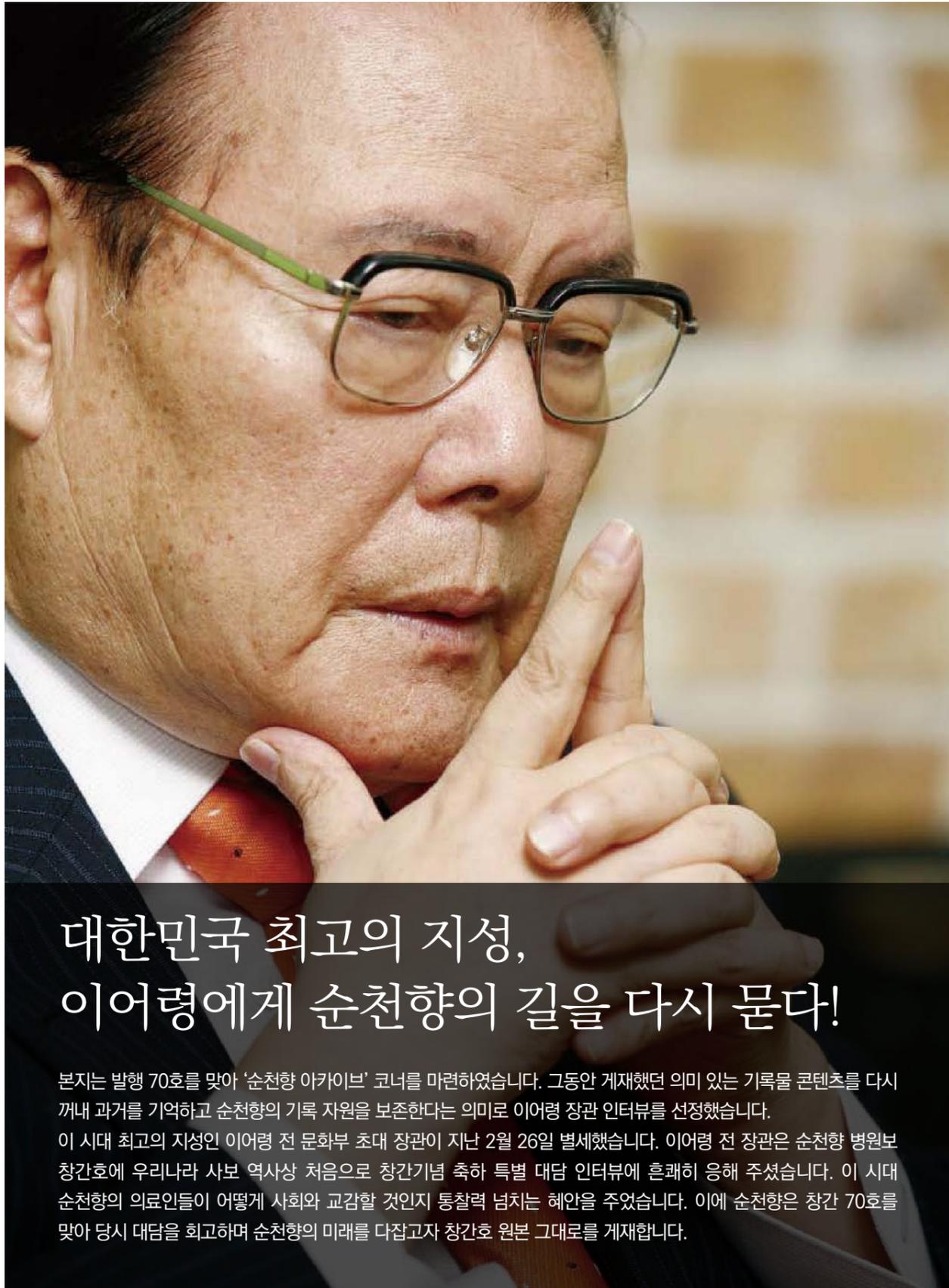
순천향병원이 진료를 개시하자마자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시선은 물론 수많은 환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여 순천향의 명성은 날로 높아가 드디어 한국 최고의 종합병원으로 자리 잡아 갔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의료진의 진료 수준, 최신 의료장비의 설치 등의 이유도 있었으나 서 박사의 개인적인 명성과 병원 경영 정신이 반영된 때문이기도 했다.

바로잡습니다

2022년 1월 19일 발행된 순천향 69호 향설 서석조 박사 히스토리 11페이지 마지막 부제 '리스제도의 힘을 빌다' 내용 중 김성곤 의원을 김성모 의원으로 잘못 게재돼 바로잡습니다. 독자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신문에 게재된 순천향 병원 개원 소식.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 이어령에게 순천향의 길을 다시 묻다!

본지는 발행 70호를 맞아 '순천향 아카이브'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게재했던 의미 있는 기록물 콘텐츠를 다시 꺼내 과거를 기억하고 순천향의 기록 자원을 보존한다는 의미로 이어령 장관 인터뷰를 선정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전 문화부 초대 장관이 지난 2월 26일 별세했습니다. 이어령 전 장관은 순천향 병원보 창간호에 우리나라 사보 역사상 처음으로 창간기념 축하 특별 대담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 순천향의 의료인들이 어떻게 사회와 교감할 것인지 통찰력 넘치는 해안을 주었습니다. 이에 순천향은 창간 70호를 맞아 당시 대담을 회고하며 순천향의 미래를 다잡고자 창간호 원본 그대로를 게재합니다.

디지로그 의사야말로 최고의 의사

유별나게 비가 많았던 여름의 끝자락. 갈 때마다 고풍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맛을 더하는 문화와 역사의 1번지 덕수궁 인근에 자리한 재단법인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를 찾았다. 대한민국의 대표 지성 이어령 전 장관은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의 통합 의료원보 창간호에 대한 축하 메시지와 함께 현 시대의 의료인들이 어떻게 사회와 교감할 것인지 통찰력 넘치는 해안을 주었다.

대담_백승주 정리_한정현 사진_김봉재

순천향대학교 4개 병원이 각자 발행하던 사보를 하나로 묶어 통합 사보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통합과 분산은 단방향이 아닙니다. 통합할 때는 분산을, 흩어질 때는 통합을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각자 살림하다 합치는가 하면 함께 살다 흩어지기도 하죠. 따로 떨어져 살다가 위기가 오면 자웅동체(雌雄同體)를 이루는 미생물도 있습니다. 고대에는 모든 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짐승이 합쳐진 용(龍)은 이 시대의 인식 체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옛날에는 시 따로, 노래 따로가 아니었어요. 함께 모여 시와 노래와 춤을 즐기던 것이 산업사회 들어서며 다양한 장르로 분화된 것입니다. 원자, 분자, 플랑크톤, 해부학, 내과와 외과 등등으로 분야마다 수행(樹形, 나뭇가지 모양)처럼 갈라져 나오는 것이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이었던 셈이죠. 원자 핵폭탄은 산업사회 분열의 기술과 파괴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시대에는 분석 기법이 각광을 받았죠. 이러던 것이 후기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에 들어서면서 다시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통섭(通涉, Consilience), 컨버전스(convergence), 퓨전, 융합, 매시업(Mash-up, 웹으로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융합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등을 만드는 것으로 웹 2.0의 구성 요소), 인터섹션, 결합 등 요즘 회자 되는 이 모든 단어들 통합으로 가는 큰 흐름의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죠.

통합 현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미디어도 통합 미디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도 시대사조를 반영하듯 의대 중심에서 종합 대로 변모했죠. 통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같은 사람끼리는 소통이 필요 없어요. 남모르는 사람들,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목욕탕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던 자기 소리가 증폭되어 들리면서 더 잘 부르는 듯 들리죠. 소통이 없는 닫힌 구조에서는 자기 소리만이 증폭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쉬워요. 다양성과 이질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통합 속에 분화가 있고 분화 속에 통합이 있어요. 통합과 분화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환자와 소통해야 합니다. 의사는 인문학과 예술 등 다양한 분야와 소통력을 키워야 합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청진기 대신
싸늘한 기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현상을 우려해
‘카르테(차트) 보지 말고 환자
얼굴을 보라’고 말할 정도죠.”

의사는 전문인일까요? 기술은 전문화되어야겠지만 마음은 살아있는 생체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생체로 다루어야지 해부학적 요소로 다루어서는 안돼요.

병원은 기계가 발달해서 MRI나 PET처럼 핵자기 공명 영상 장치로 인간의 뇌 속을 들여다보는 등 인간이 할 수 없는 투시력을 갖게 되었어요. 의사와 환자 사이에 청진기 대신 싸늘한 기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현상을 우려해 “카르테(차트) 보지 말고 환자 얼굴을 보라”고 말할 정도죠.

비인간화, 물질화 현상을 넘어서는 정신과 마음의 중요성을 자각해야 합니다.

예상대로 이어령 전 장관과의 인터뷰는 대화식이 아니라 강연식으로 진행되었다.

강연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원고가 될 정도로 막힘 없는 달변가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그에게 병원 사보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물었다.

PX에서 팔리는 잡지를 보면 공군 잡지는 육군이 읽고 육군 잡지는 공군이 즐겨 읽는 걸 볼 수 있어요. 순천향도 의학이 주체가 되면서도 통합해야 좋은 교풍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순천향에서 몇 번 강의해 보았는데 상당한 의료 수준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일반인에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죠. 환자의 신뢰가 있어야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통합 사보는 순천향의 숨은 보물을 외부에 널리 알려주는 매체가 되고 환자들도 즐겨 읽는 단골 잡지가 되어야겠죠.

‘순천향’ 하면 큰 바다에서 순풍에 돛을 달고 목적지로 가는 거대한 배가 연상돼요. 순천향대학교와 대학병원은 서교일 이사장의 ‘인간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인술’의 리더십과 손풍삼 총장이 예술을 많이 아는 ‘소셜’ 리더라는 점도 장점이죠.

우주까지도 가는 인간이 정작 몸속은 잘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내 몸을 알려면 ‘신체성’과 함께 ‘인문학’이 필요합니다. 대체의학, 자연치유, 예방의학 등의 흐름 속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요구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시각·청각·뇌과학 등 생물학적인 접근과 함께 ‘일반’ 병원에는 없는 철학적인 접근을 해봅시다.

치과 진료를 받은 데다 목이 아픈 상황인데도 “이어령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디지로그’와 ‘창조’라는 키워드를 병원과 접촉할 방안이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띄우자 ‘강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뛰어넘었다.

요즘 사방에서 디지로그를 주제로 강연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요. 온·오프라인의 결합과 함께 아이폰이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 중의 하나는 디지털에 아날로그적인 신체성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4~5년 전부터 하이테크에 감성을 입히고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결합하는 디지로그라는 말을 만들어 써왔고 갈수록 디지로그 환경이 확산되고 있어요. Wii라는 게임을 보면, 전에는 조이스틱으로 하던 게임을 실제 운동과 유사하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모션센서를 이용해 탁구, 골프 등 게임을 온몸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털피아’를 꿈꿨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디지털이 아날로그를 적극 끌어안고 있어요. 서로 보완하고 공생하며 제 3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 2002 한·일월드컵 때 만들었던 ‘BBB 서비스’도 디지로그적인 발상에서 시작된 거예요. 외국어 능통자 3천명을 휴대전화로 연결해 언제 어디서든 3자 통역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외국어를 못해 봉변당할 일이 없어요. 이 서비스를 미국에서 했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엔 안된 말이지만 창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할 줄 몰라요.

병원은 환자라는 유기생체와 교감해야 하기에 디지로그적인 접근이 더욱 필요하죠. 차트를 손으로 쓰고 문서로 보관할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써서 입력하면 훨씬 효율적이겠죠. 매시업 기법을 적용해 볼까요? GPS 지도에 순천향대학교병원 근처의 건강 관련 정보를 입력해주는 겁니다. 환자의 주소를 입력하면 쓰레기처리장, 하천, 고압선 등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정보가 함께 나온다면 좀 더 종합적인 상담과 진료가 가능할 겁니다. 기계만 사용하는 의사는 ‘사이버 의사’입니다. 아날로그 정보를 함께 버무릴 수 있는 ‘디지로그 의사’가 최고 의사라고 봅니다. 출산할 때부터 약물과 수술에 의존하고 주사를 많이 쏘는 의사보다는 환자가 스스로 견디고 치유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주는 의사가 디지로그 의사입니다. <생명자본주의>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생명자본주의의 모델은 의사입니다. 자본주의는 물질자본주의에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자본주의로 넘어갈 겁니다. 의사의 치료를, 예술가의 창작을 ‘노동’이라 하지 않고 ‘활동’이라 하는 이유는 생명에 활기를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



창간호 표지

서준

심장내과 교수
부천병원

심혈관 중재시술 권위자가 되기 위하여, '순천향^{順天鄉}' 석 자를 가슴에 새기다

후배들 지·덕·체 갖춘 의사가 되었으면...

글 전진용 사진 최종엽

처음 순천향대학교에 가던 중 들린 신창휴게소에서 바라본 학교의 모습은 그저 허허벌판에 떨렁 건물 몇 개 뿐이었다. “무조건 재수를 해야지”라며 실망했다.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서 교수는 “마치 문신처럼 가슴속에 순천향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 있다”고 말한다. 심혈관 중재시술의 국내 권위자 중 한 명인 서 교수의 살아온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名醫

서 교수의 꿈은 어릴 적부터 오직 의사였다. 의사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나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넌 커서 의사가 되어야 해”라고 항상 말씀하시던 부모님 때문이었다.

“좋은지 나쁜지,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 교수의 어린 시절 별명은 ‘올보’였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몸이 약해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 신세를 졌다. 조금은 나약하고 조용했지만, 공부만은 열심히 하는 소위 ‘범생이’였다.

“하도 자주 아프다 보니 어머니가 저를 업고 병원 문을 두드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건강해 보이지만요(웃음).” 사실 서 교수가 의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꿈을 대신 이루는 것이었다. 군인이셨던 아버지는 원래 의사가 꿈이라 의대에 합격도 했다. 하지만 학비를 댈 수 없어 의대를 포기하고 군인이 됐다. 그렇기에 서 교수의 의대 입학은 부모님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대학 입시 전기에서 모 의대에 낙방을 했습니다. 후기를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가 원서 하나를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바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원서였습니다.” 합격 후 처음으로 학교에 가던 날 도착 전 들린 신창휴게소에서 바라본 학교의 모습은 실

망 그 자체였다. “절대 다니지 말아야지!” 하지만 아버지는 서 교수를 의대생들만 모여 사는 하숙집에 넣어 버렸다. 자연스럽게 선배, 동기들과 생활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바뀌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의대 시절 기쁨이 되다

“저희 과에는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한 범생이였던 저에게 가족과 떨어져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낯설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아주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학업에 열중했지만, 주말에는 항상 찾는 곳이 있었다. 바로 의료봉사 연합동아리 ‘소금회’였다. 동아리 활동을 위해 매주 서울을 찾았다. 교통이 불편했지만, 친구들과 나누는 추억과 보람의 기쁨이 몇 배는 됐다.

“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 학생들로만 구성된 연합 동아리였어요. 뭐 힘든 일도 있었지만 여러 학교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거든요. 첫사랑을 만난 곳이기도 하고요(웃음).”

당시 영등포고등학교 위쪽 달동네에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주민들에 대해 의료봉사를 했다. 그래도 국가보훈처에서 본 동아리의 후원 역할을 해주었고, 동아리 활동은 학생 남녀 비율이 비슷해 더 재미있었다고 회상한다.

선배 한마디가 심장내과와 연을 맺게 하다

사실 좋았던 의대 시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순천향에서 벗어나 더 이름 있는 중앙무대로 나가는 것을 꿈꾸곤 했다.

“아산병원에서 인턴을 마치고 성형외과에 지원했었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다시 순천향으로 돌아와 내과를 선택하였습니다. 다시 세부전공을 고민할 무렵 지금은 삼성의료원에 계신 온영근 교수님이 논문 하나를 던져 주셨습니다.”

“이거 통계라도 돌리고 초록 좀 써봐” 온 교수의 말이 다소 황당하게 느껴졌다. 그동안 논문은 전혀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떻게든 논문을 만들어 고혈압학회에 제출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심장내과에 자연스럽게 발을 들인 것 같아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때 순천향대학병원의 자랑이었던 소화기내과의 심찬섭 교수님께서 직접 소화기내과로 전공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서 교수의 결정은 심장내과였다.

“순천향의 똑똑한 선생님들은 다 소화기내과를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천향에서 좀 부족한 심장내과를 외부에서 더 공부하고 다시 순천향으로 돌아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2000년대 초 IT 붐이 일 때 잠시 헬스케어 분야 사업으로 1년간 외도를 해 실패를 맛보기도 했지만, 결국 돌아갈 곳은 모교인 순천향이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서 교수는 국내에 손꼽히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되었다. 특히 전문 분야는 심혈관 중재시술 파트다.

“중재시술은 내과적 치료와 외과적 치료의 중간이라고 생각하

면 됩니다. 가슴을 열어야 하는 큰 수술이 불가피할 때도 있지만, 이왕이면 혈관을 타고 할 수 있는 중재시술이 가장 좋은 것이죠.” 서 교수의 부천병원 심장내과는 관상동맥 중재시술 등 1년에 약 700건의 시술을 소화하고 있다. 말초혈관 중재시술, 부정맥 전극도자절제술, 대동맥판막치환술 등도 중재시술로 해내고 있다.

“가르칠 수 있는 의사가 되겠다”

순천향대학병원에 온 이후 의사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큰 비전으로 자신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저 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 교수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기본연구 사업에 지원해 ‘관동맥 만성완전폐색병변의 만성관동맥증후군 환자에서 치료 전략 수립을 위한 분자생물학적 지표 발굴(3년간 연구비 1억 5천만 원)’이 선정됐다.

“심장 관련 연구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분야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심전도나 맥박 등도 모니터링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관련 헬스케어 등의 연구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 교수는 이런 여러 연구와 노력을 통해 ‘가르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자칫 외골수적이거나 사회성이 부족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장 전문의, 혈관 전문의 같이 명사형 호칭이 아닌 실력이 있는 의사, 존경받는 의사 등의 형용사형 호칭이 좋습니다. 저는 ‘가르칠 수 있는 의사’이고 싶습니다.” 여기서 서 교수가 말하는 가르친다는 의미는 단순히 교수로서 후배를 가르치는 것만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환자들에게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 분야는 중증환자가 많기에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더 많이 설명해주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 드려야 합니다.”

환자에게는 꼭 다 좋은 말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시키고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혼자 떠드는 일이 돼선 안 된다는 게 서 교수의 생각이다.

“듣는 사람이 듣고 싶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책, 논문도 써야 하고 연구 활동을 통해 성과와 결과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서 교수는 “항상 느끼는 것이 나는 어쩔 수 없이 출신 성분이 순천향인”이라며 “남들은 대충해도 그냥 그대로 보지만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 동료와 후배, 선배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에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마치 문신처럼 순천향이라는 석 자가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덧붙였다.

무궁무진한 순천향... 훌륭한 후배 있어 뿌듯

서 교수는 “요즘 MZ세대의 후배들을 보며 너무 똑똑한 인재들이 많아 놀라곤 한다”며 “이런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실력뿐 아니라 지(智)·덕(德)·체(體)를 겸비한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존경하고 롤모델로 삼고 있는 스승과 선배들을 보며 결국 실력만이 다는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여러 스승과 선배를 보며 가장 놀란 것은 제자와 후배들을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는 모습을 보며 결국 존경받는 의사는 윗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한테 평가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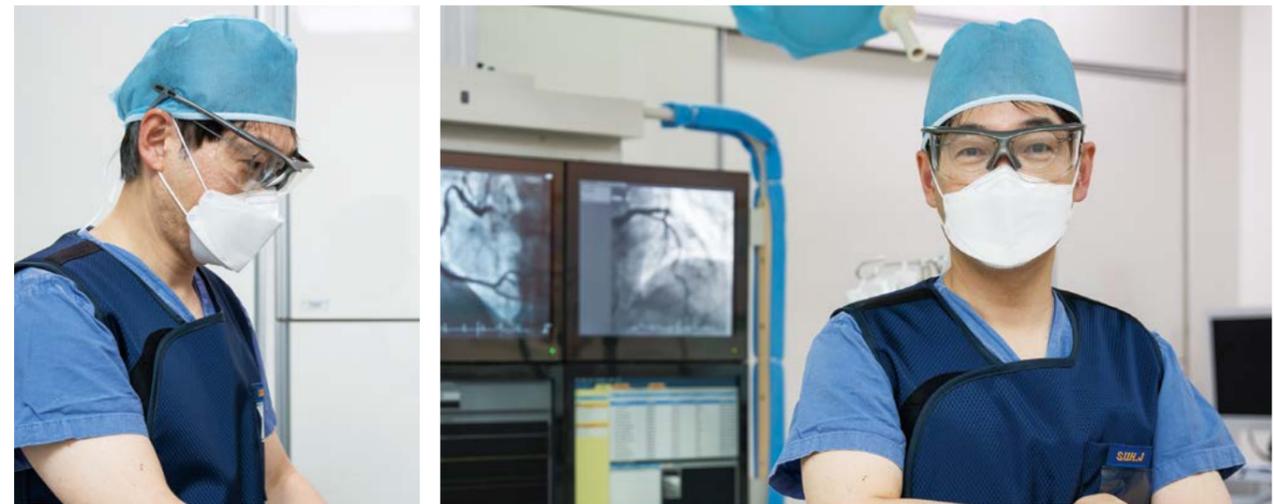
이런 인재들로 인해 순천향대학병원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대형 병원에 비해 다소 열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모든 직원 개개인이 훌륭한 인성으로 병원에 대한 높은 충성도로 토틀 뭉치기 때문이라 귀땀했다.

“전에 외부 업체로부터 병원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충성도가 이렇게 높은 병원은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씩께 감사할 일입니다. 뛰어난 능력에 훌륭한 인성까지 갖춘 모든 일원이 바로 우리 병원을 무궁무진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결국 순천향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사람’입니다.”

‘순천향’이라는 이름에 관한 에피소드도 들려주었다.

“간혹 동문끼리 ‘왜 우리는 ‘순천향(順天鄕)’이라는 한자 세 개로 이름을 지었을까? 발음도 어딘가 토속적이지 않니?’라며 농담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을 방문할 일이 있어 제 명함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일본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너무 멋진 발음, 멋진 뜻의 이름이라고 감탄하더라고요.”

서 교수는 “이처럼 멋진 뜻 이름의 우리병원에 이처럼 멋진 훌륭한 인재들이 모인 만큼, 앞으로 더욱 눈부신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며 “저 역시 저 스스로를 좋은 의사라고 느낄 수 있도록 후배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며 미소를 지었다.



소수정예 최강 팀워크 자랑하는 '천안 어벤저스'

국내 최초 도입한 '베리톤CT' 등 최첨단 장비로 무장

글_전진용 사진_전용철



지난 2011년 개설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핵의학과는 2명의 전문의, 7명의 방사선사, 2명의 간호사로 구성된 그리 크지 않은 팀이다. 하지만 불과 10여년 사이 천안병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보석 같은 부서로 자리를 잡았다. 모든 팀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열정적인 활동에 더해 최고의 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정예 최강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천안 어벤저스'가 바로 핵의학과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핵의학과는 병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서 중 하나다. 여러 질병에 대한 다양한 협진이 이루어져야 하며 암과 같은 중증질환 치료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학문이기 때문이다. 핵의학과는 방사성동위원소(radioisotope)를 이용하여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적용하는 분야로서 각종 악성 질환 및 내분비 질환, 심장질환, 뇌신경 질환 등에 폭 넓게 이용되고 있다. 천안병원 핵의학과는 지난 2011년 처음 개설됐으며 암 치료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일등공신이 됐다.

개설과 동시에 PET-CT(양전자 단층 촬영기), SPECT(감마카메라) 등 최신 핵의학 장비를 모두 갖췄으며 갑상선암환자들의 치료에 이용될 '방사성 요오드 치료병실'도 구축했다. 초기 핵의학과 수장이 된 이상미 교수는 제주대 의대를 졸업했으며, 서울대병원 핵의학과에서 풍부한 임상경험을 쌓은 후 12년째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핵의학과를 이끌고 있다. 이상미 교수는 "암치료영역 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질환에 대한 민반의 시스템과 역량을 갖춘 만큼 이를 활용하여 천안 지역 뿐 아니라 국내 다양한 암환자를 비롯한 여러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해 전 팀원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성능 핵의학 검사기기, '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기(SPECT)' 갖춰

핵의학과는 지난 2017년 고성능 핵의학 검사기기인 '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기(SPECT, 모델명: Discovery NM630)'를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SPECT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환자에게 주사한 다음 체내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감마카메라로 수집해 컴퓨터를 이용 몸 속 장기들을 3차원 영상으로 구현하는 진단용 의료장비다. 장기의 구조적인 변화를 비롯해 체내의 생리적인 기능까지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어 질병진단 및 경과관찰 등 활용도가 매우 높다. 특히 각종 암을 비롯해 뇌신경계, 심혈관계, 근

골격계, 소화기계 등 다양한 질환 진단에 유용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검사장비로 꼽힌다.

천안병원 핵의학과와 SPECT는 기존의 기술들을 뛰어넘는 신기술 적용돼 성능 면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기존 장비에 비해 초고화질 영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검사 속도가 2배 이상 빨라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능력을 발휘한다. 방사능 피폭량도 절반이상 줄어 보다 안전하다. 이상미 교수는 "우리병원의 SPECT를 통해 검사대기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의학검사장비 '베리톤CT' 국내 첫 도입

이 뿐만이 아니다. 핵의학과는 핵의학 영상검사 장비인 '베리톤CT'을 지난 2020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상급종합병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핵의학 검사장비 '감마카메라'의 혁신 버전이 '베리톤CT'다. 감마카메라는 미량의 방사선물질을 몸에 주사한 후 촬영함으로써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진단과 추적 검사에 필요한 영상을 제공하는 검사장비다. 기존의 감마카메라가 2차원 검사장비라면 베리톤CT는 3차원 장비다. 영상을 얻는 카메라(디텍터)가 기존 감마카메라에는 2개가 마주보며 달려 있지만 베리톤CT에는 12개가 360도 원형으로 달려있다. 베리톤CT는 12개의 카메라가 환자의 몸을 둘러싼 채 돌아가며 고속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다른 감마카메라에 비해 검사시간이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베리톤CT의 카메라는 또한 반도체 방사선 검출기인 CZT(Cadmium-Zinc-Telluride)모듈을 사용하기 때문에 10배 이상 선명한 영상을 제공한다. 빠르고 정밀한 3D 촬영으로 베리톤CT는 특히 심장 등 움직임이 많은 장기와 소아환자들의 검사에도 매우 유용하다. 이상미 핵의학과장은 "독보적인 고속 촬영과 정밀영상 구현능력으로 베리톤CT는 진료과들의 진단과 치료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INTERVIEW

이상미 교수(핵의학과 과장)

“위험해 보이지만 가장 매력적인 분야”



2011년 천안병원 핵의학과 개설과 함께 학과장을 역임해 온 이상미 교수는 핵의학과 분야 최고의 전문가 중 한명을 꼽는다. 뼈스캔(Bone Scan)검사를 이용해 50%에 달하는 원인미상 흉통의 정체를 상당부분 밝혀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 주목받은 바 있다. 또한 뼈스캔을 통해 류마티스관절염 등 관절 통증 환자의 질병정도와 치료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새로운 진단법도 제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핵의학과는 보통 영상의학과와 달리 미세한 변화까지도 확인할 수 있고 생체 여러 원리를 이용해 치료까지 가능하게 하는 미래 지향적 분야입니다.” 본과 3학년 때 심장 관련 영상을 보다가 애니메이션 같고 다채롭다고 느껴 핵의학과에 길로 들어섰다. 이후 서울대병원 핵의학과에서 풍부한 임상경험을 쌓은 후 순천향대학교 핵의학과를 맡으며 10여 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 냈다.

“처음 이문수 원장님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더욱 의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핵의학과는 해가 가면 갈수록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천안병원은 핵의학과를 마이너과로 여기지 않고 작은 것에도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이 교수는 여전히 핵의학과 관련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저는 종양자체도 중요하지만 종양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저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트롤을 통해 맞춤형 암 치료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이 교수는 “핵의학과를 병원에서 필수적인 과로 더욱 발전시키며 2045년 정년퇴임까지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사선 하면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를 이용해 인간에게 이로운 일을 하는, 위험해 보이지만 매우 매력적인 분야”라고 강조했다.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핵의학과는 기존의 해부학적인 영상이 가질 수 있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질환 치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경, 뇌 분야에 관심 많아 연구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장관련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유 교수는 “저희 부서는 핵의학과와 핵의학팀으로 나뉘며 이 두 팀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하고 있다”며 “비록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어디에도 뒤지지 않은 첨단 설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핵의학과는 검사 시 환자 컨디션, 혈당 등 신경 쓸 부분이 매우 많다. 그렇기에 핵의학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의와 방사선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도 뛰어난 인력, 최상의 설비 등 충분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병원의 한계를 뛰어 넘는 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유 교수는 이상미 교수와 함께 검사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이나 장비들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더 많고 다양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검사를 할 수 있는 일당백의 장비와 인력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환자들에게 더 많은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인정받는 과로 만들고 싶습니다”

INTERVIEW

최학기 핵의학팀 팀장(방사선사)

“아름답게 뭉치고 서로를 진심으로 돕는 팀”



최학기 핵의학팀 팀장은 핵의학과 내 최고참 직원이다. 지난 1987년도에 처음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방사선사로 입사 했다.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다 핵의학과 탄생과 함께 지난 2011년 합류했다. “가장 힘든 점은 핵, 즉 동위원소를 다루는 만큼 까다롭고 주의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많은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팀의 가장 고참으로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후배들의 모범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 팀장은 천안병원 핵의학과는 이미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검사설비를 갖춘 만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여년 사이 핵의학과는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소가 없어서 장비가 있어도 넣을 곳조차 없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요즘 정말 획기적인 장비들이 들어오고 이를 사용할 때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최 팀장은 핵의학과가 비록 인원은 적지만 그 어떤 팀보다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최고의 호흡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안병원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의학과 역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팀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팀장은 천안병원 신축을 앞두고 기대감도 내비쳤다. 병원이 신축되면 핵의학과 역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며 환자들에게도 좀 더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저희 핵의학과가 인원과 장비를 더욱 보강하고 이를 후배들이 잘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년을 앞두고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걸 같습니다.” 불과 정년퇴임은 1년 앞두고 있다는 최 팀장은 “핵의학과는 서로 아름답게 뭉치고 서로를 진심으로 돕는 팀”이라며 “이런 팀과 함께 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전했다.

INTERVIEW

유익동 교수

“최강의 멤버, 최상의 설비 갖춘 드림팀”

유익동 교수는 이상미 교수의 부름으로 지난 2017년부터 순천향대학교 핵의학과에 합류해 든든한 기둥이 되고 있다. 이상미 교수와 마찬가지로 쉽 없는 연구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 교수는 폐절제 환자의 잔존 폐기능 예측 방법을 개발했으며 비만·당뇨환자의 치매예방 기능 유전자를 발견하는 등 여러





“지역사회에 작은 보탬된 걸로 만족”

햇살아이지원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도움

글_전진용 사진_전종훈

기업은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고 또한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구미시 역시 이런 여러 기업들이 사회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기업이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주)에스엘테크다. 서임교 (주)에스엘테크 대표는 순천향 구미병원과 함께 사회 이면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아이들을 위해 묵묵히 도움을 손길을 내밀어 왔다.

서임교 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주)에스엘테크를 이끌고 있다. “처음에는 해외기업의 지사였습니다. 주로 LCD 검사장비 관련 제품을 생산했었는데, 이를 보완해 우리만의 기술로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기술로 LCD 검사장비 Array Tester 국산화 개발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전 세계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2018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어 청와대의 초청을 받기도 했다. 2019년도에는 국무총리 상을 수상했으며 2020년에는 경북스타기업,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선정됐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로 나가기 쉽지만 현재 구미 본사와 경기도 파주, 중국의 광저우, 베트남 등에도 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사회에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고자 항상 노력해 왔다. 특히 순천향 구미병원과는 지난 2015년부터 연을 맺고 있다. 구미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햇살아이지원센터의 이사로 활동하며 어려운 지역주민과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위해 여러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다. 햇살아이지원센터는 전국 의료기관 최초로 2007년부터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치료비 지원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다. “아이들이 방임되거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유기 등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만 있다면 큰 도움이 되거든요. 기업인이자 지역주민으로서 그저 작은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사각지대의 주민 위한 꾸준한 지원

서 대표는 순천향 구미병원 뿐 아니라 김천구미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에도 꾸준한 도움을 주고 있다. “일회성의 큰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구미병원과 함께 이런 아이들을 찾고 작은 도움이나마 지원할 수 있어 기쁩니다.” 현재 구미병원 햇살아이지원센터에는 10여명의 지역인사들이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의사, 변호사, 기업가, 자영업자 등 직업도 다양하다. 이사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구미병원 햇살아이지원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기금을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햇살아이지원센터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이기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도움이 절실한 곳입니다. 그래야만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현재도 약 40여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장차 이 구미지역을 지탱하는 훌륭한 구성원으로 잘 성

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 대표의 이러한 지역주민에 대한 애정은 기업경영에도 잘 묻어나고 있다. 직원 채용시 전원 정규직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상해보험가입 및 사내에 헬스장 설치, 사무동 리모델링, 공장도 시설보수공사, 연중 근로인센티브 지급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17년도에는 구미고용노동청과 경상북도로부터 청년고용업체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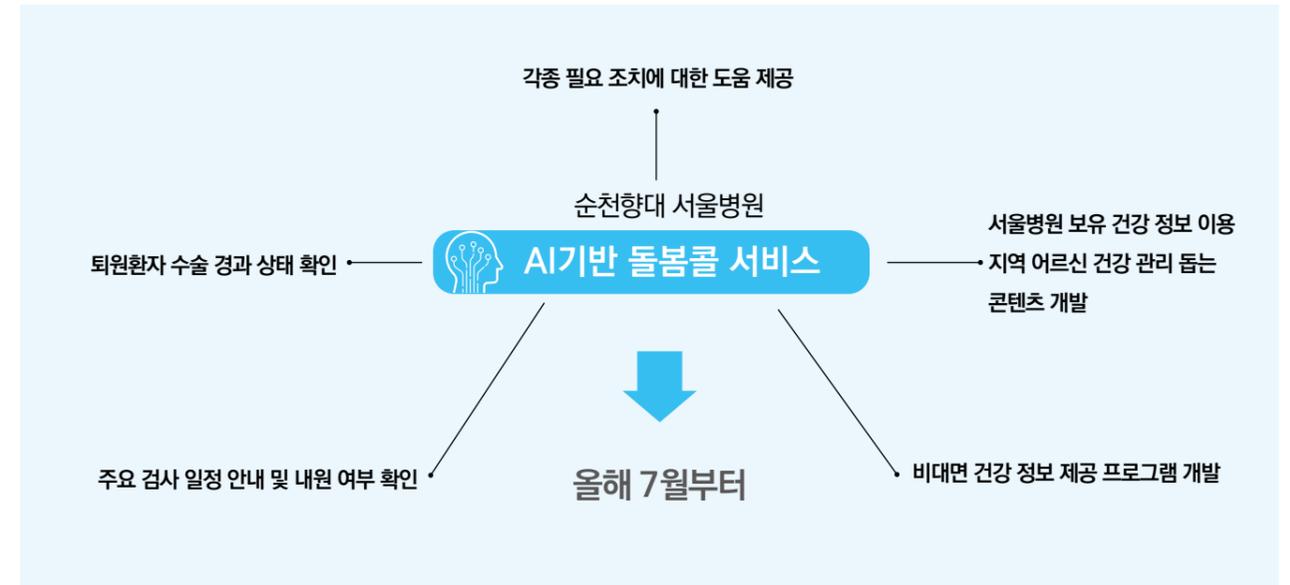
“솔직히 내세우기 부끄럽습니다.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의 기업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직원들 역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하는 또 한명의 이웃이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서 대표는 “앞으로도 구미병원 햇살아이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의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에 더욱 힘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전했다. “사실 그리 큰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욱 많은 이들이 동참해 준다면 더 많은 이웃과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구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작지만 큰 밑거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시 기반 비대면 환자 돌봄 서비스 국내 최초 제공

순천향대서울병원-SKT, 시 기반 돌봄콜 업무 협약

퇴원환자와 시의 통화내용 기반으로 환자상태 파악 및 외래일정 확인까지 척척
순천향대서울병원 7월부터 서비스, 지역 거점병원으로 확대 예정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은 23일 원내 회의실에서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과 퇴원 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AI 기반 돌봄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순천향대서울병원과 SKT는 퇴원환자의 수술 경과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조치에 대한 도움을 주거나 주요 검사 일정 안내 및 내원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AI 기반 돌봄콜 서비스를 올해 7월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순천향대서울병원이 보유한 건강 정보를 활용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는 콘텐츠도 개발하고, 비대면 건강 정보 제공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AI 기반 돌봄콜은 SKT가 자체 개발한 '누구 비즈콜(NUGU bizcall)'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휴사가 직접 통화 시나리오를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다. '누구 비즈콜'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방역 근로자를 대신해 AI가 전화를 걸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누구 케어콜(NUGU carecall)' 서비스를 통해 AI 방역에 활용돼 운영의 안정성이 검증된 바 있다. 한편, SKT는 2019년부터 인공지능 누구(NUGU) 기반의 AI 돌봄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시작해 현재 70개 지자체 및 돌봄 기관 관할의 1만2천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AI 돌봄 서비스를 통한 어르신의 긴급구조 사례도 189건에 이르고, 긴급구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소방청과 긴급 SOS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

이준호 SKT ESG 추진 담당은 "SKT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돌봄'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거점 병원과의 비대면 환자 돌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재 순천향대서울병원장도 "이번 SKT와 협약을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환자 돌봄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제공하게 되었다"며 "SKT와 협력을 강화해 우리 병원의 미션인 '인간사랑 정신과 의료의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모두가 신뢰하는 안전한 병원' 만든다

병원장 직속 '안전총괄처' 신설

부천병원이 환자와 보호자, 직원 모두가 신뢰하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근 '순천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식'을 개최하고 '순천향 안전사고 예방 5대 캠페인'을 전개했다.



- 1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2월 3일 '순천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식'을 가졌다.
- 2 결의식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1월 27일 석현 안전관리실장과 관련 부사장이 병원 구석구석을 살피며 주요 시설물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3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모두가 믿고 신뢰하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3월 2일 순의홀에서 '순천향 안전사고 예방 5대 캠페인'을 전개했다.
- 4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순천향 안전사고 예방 5대 캠페인' 직후, '중대재해 예방팀 발족식'을 가졌다.



- '순천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식'
- '순천향 안전사고 예방 5대 캠페인'
- '안전총괄처' 및 '중대재해예방팀' 신설

'순천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식' 개최

부천병원이 2월 3일 '순천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식'을 갖고, 환자 및 직원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신용진 병원장을 비롯한 교직원 대표는 원내 순의홀에서 '안전 결의문'을 낭독하고, 중대재해 사고 예방 의지를 다졌다. 결의문 주요 내용은 ▲환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적극적인 안전보건 예방 활동 및 안전 질서를 준수해 직원 안전 도모, ▲환자안전 관리역량 강화 및 안전 보장 환경 조성, ▲환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병원 환경 구축 등이다.

'순천향 안전사고 예방 5대 캠페인' 전개

부천병원은 3월 2일 순의홀에서 '순천향 안전사고 예방 5대 캠페인'을 전개했다. '순천향 안전사고 예방 5대 캠페인' 내용은 ▲낙상 예방수칙 준수하여 환자안전 실천하기 ▲보행 중 스마트폰 안 보기 ▲위험 요인 즉시 신고하기 ▲보호구 올바르게 착용하기 ▲날카로운 기구 조심해서 찔림사고 예방하기 등이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앞으로 직원들에게 5대 캠페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해 환자 및 직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안전총괄처' 및 '중대재해예방팀' 신설

부천병원은 3월 1일부터 병원장 직속의 '안전총괄처'를 신설하고, 안전총괄처 산하에 기존의 '안전보건관리팀' 외에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했다. '안전보건관리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중대재해예방팀'은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정책 수립, 집행관리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수행한다. 한편,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결의식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1월 27일 석현 안전관리실장과 관련 부사장이 병원 구석구석을 살피며 주요 시설물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2018년부터 원장단과 QI팀, 시설팀, 총무팀 등이 정기적으로 환자안전과 시설물을 점검하고 개선 활동을 펼쳐왔다.

신용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올해 새 경영목표 중 하나를 '환자안전이 최우선인 상급종합병원'으로 정했다. 환자안전은 생명과 직결되어 그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에 안전보건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펼쳐 환자와 보호자, 직원 모두가 믿고 신뢰하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천안병원은 지금 '독서열풍'

“교직원들의 자기계발은 물론 병원발전에 자양분 될 것”

천안병원에 독서열풍이 불고 있다. 열풍의 중심에는 박상흠 병원장의 '독서경영'이 있다. 박상흠 병원장은 취임식에서 “보람과 자기발전, 자아성취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직장(GWP, Good Work Place)를 만들겠다”고 독서경영 의지를 밝혔다. 그 일환으로 천안병원은 현재 서로 교직원들이 상호 소통하면서 보람과 행복을 찾고, 자기계발을 위한 독서가 한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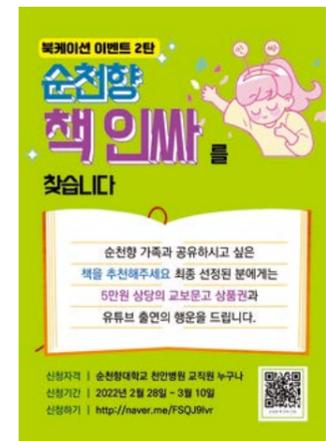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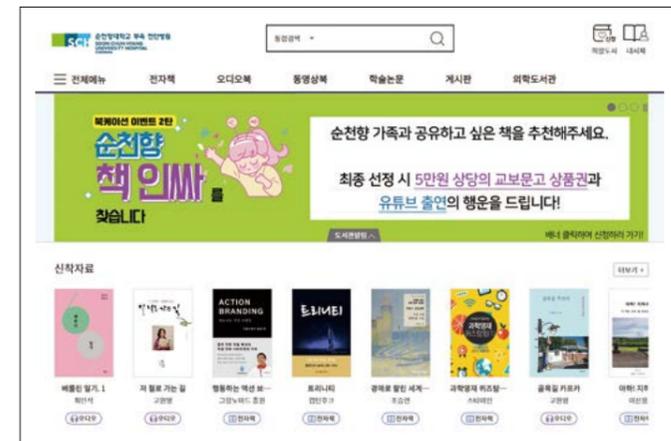
교직원은 지금... '해빙(Having) 중'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GWP 빅이벤트! 1탄이 공개됐다. 천안병원 흥연연구소(소장 김준혁)에서 마련한 이벤트는 바로 '북케이션(Bookcation)' 책 선물 이벤트다. 북케이션이란 책(Book)과 소통(Communication), 휴식(Vacation), 교육(Education)의 합성어다. 이벤트는 교직원에게 박상흠 병원장의 추천도서 '더해빙(이서윤·홍주연 저)' 127권을 선물한 것. 이중 55권은 박 원장의 사비로 마련해 전달했으며, 무려 356명의 교직원이 도서 수령을 신청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입사한 신규 간호사는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풍족하게 살고 싶어 신청한다”고 전했고, 총무팀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은 “책을 통해 나의 문제점을 자가진단하고, 보람 있는 삶과 멋진 인생을 살기위한 동기를 찾고자 한다”며 신청사유를 밝혔다. 천안병원은 앞으로도 교직원들에게 추천도서를 선물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보직교수, 매월 1회 온라인 강독회 시행...첫 강독 박상흠 병원장의 추천도서 '혼창통'

지난 2월 16일 천안병원 보직교수들은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이용해 '온라인 강독회'를 연 것. 독서토론회인 강독회는 저녁시간을 이용해 2시간동안 진행됐다. 병원 설립자의 호를 따서 '향설의 서재'로 명명된 첫 강독회에는 병원장을 비롯한 20여명의 보직교수가 참여했다. 강독회는 매월 1권의 경영서적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리더십을 키우는 학습프로그램이다. 첫 향설의 서재는 박상흠 병원장의 추천도서 '혼창통(이지훈 저)'을 강독했다. 백무준 연구부원장(외과), 전섭 진료부장(산부인과), 박재홍 교육수련부장(이비인후과)이 독후감 발표자로 나섰으며, 참가 보직교수들은 열띤 토론을 통해 이해의 깊이를 더했다. 박상흠 병원장은 “향설의 서재는 보직교수들의 자기계발은 물론 병원발전에 큰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월부터는 전자도서관도 운영

3월부터 교직원들의 여가시간 활용과 자기계발을 위해 전자도서관도 운영을 시작했다. 전자도서관은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내에 별도 마련됐다. 천안병원 교직원은 누구나 6만권에 달하는 전자책을 비롯해 오디오북, 동영상책, 학술논문 등을 마음껏 볼 수 있다. 전자책은 한 달에 5권, 대출 기간은 14일이며, PC, 휴대폰, 태블릿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볼 수 있다. 한 도서를 천안병원 전 교직원이 동시에 구독할 수도 있다.

조기 위암, 내시경적 점막하절제술 성공

세계적 권위자 정일권 소화기내과 교수 집도

구미병원(병원장 정일권)은 1월 12일, 3센티미터의 위암 환자를 내시경적 점막하절제술로 위암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시술을 성공하였다. 환자 A씨(여, 78세)는 동네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하였고, 위선암으로 진단 받아 큰 병원으로 가라는 의사의 말에 수술 할 병원을 수소문 하던 중 순천향대 구미병원 정일권 소화기내과 교수를 만나게 되었다.



정일권 병원장은 국가암관리사업 위암분과 위원장으로서 위암검진 권고안을 제 개정 하는 등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확립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락천의학상, 월봉학술상, 과학기술상, 순천향의대 올해의 우수논문상 등 수상 이력도 화려하다. 무엇보다 조기위암의 내시경 수술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으며, 독창적인 내시경 수술용 칼을 개발해 전 세계 병원에서 사용하는 등 보건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정일권 병원장, 조기위암 내시경 수술분야 세계적 명성

순천향대 구미병원에 내원한 환자는 소화기내과 진료 후 내시경 확인 결과 위암의 모양이 크면서도 용기형이 아니고 중심부에 넓게 함몰이 있어 난이도 높은 치료가 예상되었다. 정일권 교수는 풍부한 수술 경험과 탁월한 실력을 바탕으로 3센티미터의 위암을 내시경적 점막하절제술로 안전하게 제거하였다. 내시경적 점막하절제술은 비침습적 수술로 암 병변만 제거하고 위장은 그대로 보존할 수 있어 수술 다음날 식사가 가능하다. 또한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으며 위암 수술 후에도 정상인과 똑같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적다.

최근 국가 암 검진 확대와 정착으로 발견되는 조기위암 환자의 대부분에게 적용이 가능하며, 완치가 될 수 있어 내시경적 점막하절제술은 최선의 치료 방법으로 선택되고 있다. 그동안 비수도권에는 전문적으로 시술하는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많은 환자들이 수도권이나 3차병원으로 몰려 장시간 대기하는 등 치료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으나, 2022년 1월부터 내시경치료 최고 명의 정일권 소화기내과 교수가 순천향대 구미병원 제22대 병원장으로 취임하여 내시경적 점막하절제술을 시행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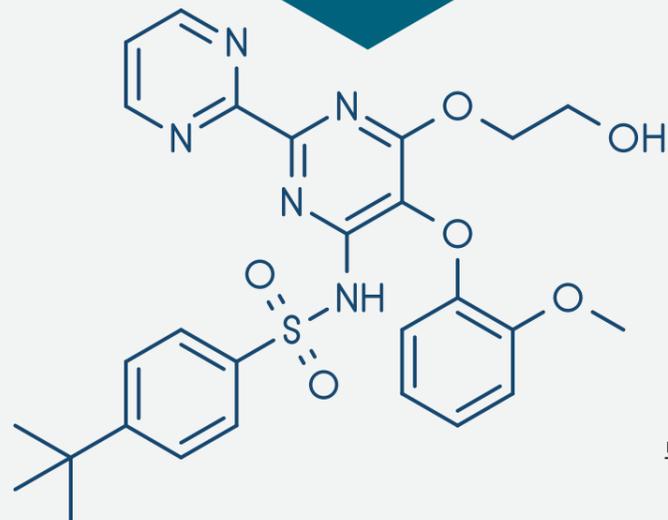
정일권 병원장은 국가암관리사업 위암분과 위원장으로서 위암검진 권고안을 제 개정 하는 등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확립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락천의학상, 월봉학술상, 과학기술상, 순천향의대 올해의 우수논문상 등 수상 이력도 화려하다. 무엇보다 조기위암의 내시경 수술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으며, 독창적인 내시경 수술용 칼을 개발해 전 세계 병원에서 사용하는 등 보건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전신경화증에 의한 수지 궤양 환자 '보센탄' 치료 연구 발표

김현숙 순천향대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팀



보센탄의 구조



김현숙(좌) · 이경언(우)
순천향대 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전신경화증의 대표 증상인 수지 궤양 치료에 보센탄(상품명-트라클리어) 복용이 완전 회복이 가능하지만, 일부 효과가 없는 경우 궤양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센탄은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제다.

김현숙 · 이경언 순천향대 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팀은 전신경화증과 폐동맥고혈압은 병리기전이 같아서 폐동맥 같은 큰 혈관의 문제를 줄여주는 약제가 작은 혈관병증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가설로 전국 4개 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3개월 이내에 활성 수지 궤양 병력이 있는 전신경화증 환자 31명과 복합결체조직질환 4명에게 보센탄 복용 후 수지궤양의 개수와 최대크기의 변화를 24주까지 전향적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보센탄 복용 후 4주, 8주, 16주, 24주 후 수지궤양이 완전 소실된 비율이 각각 8.6%, 38.2%, 51.9%, 55.0%였다. 특히 보센탄 복용 24주차에 수지궤양이 개선된 환자의 비율은 75.0%였다.

김현숙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보센탄 투여 후, 절반 이상의 환자가 완전히 수지궤양이 소실되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호전이 없는 환자들은 오히려 궤양의 크기가 증가해, 향후 폐동맥고혈압처럼 난치성 수지궤양에서는 장기치로나 다른 계열의 약제와의 병용요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현숙·이경언 교수팀은 연구 결과를 임상류마티스학저널(Journal of clinical rheumatology 2021년 12월호)에 'Effects of Bosentan in the Treatment of Digital Ulcers in Korean Patients With Systemic Sclerosis: A Longitudinal, Multicenter, Uncontrolled Trial(전신경화증 환자의 수지궤양 치료에 보센탄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발표했다.

전신경화증은 신체 면역체계 이상으로 피부세포인 콜라겐이 과도하게 증식해 피부와 내부 장기를 섬유화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다. 초기에는 피부에서 증상이 나타나지만 면역 반응으로 혈관병증과 섬유화가 나타나 장기에도 손상을 준다. 대표적으로 손가락 발가락 피부가 서서히 썩는 궤양증과 레이노 현상, 폐섬유화, 폐동맥고혈압, 소화기장애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국내 전신경화증 환자는 약 3천9백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4천3백명으로 증가했다. 이중 수지와 족지 궤양을 동반한 환자는 30~40% 정도다. 또한, 일생 동안 수지궤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환자는 대략 70~80%정도에 이른다. 특히, 전신경화증에서 레이노 현상이 심해져서 생기는 수지 및 족지 궤양은 자연적으로 피부 안까지 괴사가 생길 수 있어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일반적으로 다친 것보다 신경통증이 훨씬 심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태아 심장에 생긴
'선천 심질환'**
 아기 손·발가락 끝이 파랗고 숨 가쁘면 의심



이선향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선천 심질환'은 태아의 심장에 구조적 문제가 발생해 '청색증',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의 총칭이다. 우리나라 신생아 1천 명 중 8~12명이 '선천 심질환'을 갖고 태어나며, 선천 심질환 환자 80% 이상이 5세 이전에 사망하고 있어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아기 손·발가락 끝이 파랗고 숨 가쁘면 의심

선천 심질환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복합 작용으로 발생해 대부분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주요 위험인자는 산모의 당뇨 질환과 페닐케톤뇨증, 비만, 풍진 감염, 발열 질환, 탈리도마이드-레티노산 같은 특정 약물의 남용이다. 또,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1~12주 사이 부모가 음주한 경우, 선천 심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다.

선천 심질환 중 좌우 심실 사이 벽에 구멍이 생기는 '심실중격결손'은 전체 환자의 약 34.9%를 차지한다. 좌 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 전신으로 흘러가야 하는 혈액이 구멍을 통해 우심실로 유입되면, 이 혈액만큼을 심장에서 더 내보내야 해 무리가 생길 수 있다. 그 외 좌우 심방 사이 벽에 구멍이 생기는 '심방중격결손'과 출생 직후 정상적으로 막히는 동맥관이 막히지 않고 남아있는 '동맥관개존증' 등이 있다.

주요 이상 증상은 비정상적인 혈액 흐름으로 산소를 적게 함유한 피가 전신 순환하면서 손가락과 발가락 끝, 입술, 혀, 귀 등 피부나 점막이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 그리고 폐에 혈액이 쌓여 생기는 '호흡곤란'이다. 출생 직후 증상이 없다가 생후 수일 또는 수주 내에 청색증이나 급성 신부전, 폐울혈, 심부전, 쇼크 등을 보이면 '동맥관 의존형 심질환'일 수 있다. 호흡곤란이나 청색증은 선천 심질환뿐 아니라 폐 질환, 패혈증, 대사 질환 등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선천 심질환의 치료 방법은 약물 복용 등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완전 교정술'이 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시행해야 향후 판막질환, 폐고혈압 등 합병증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대부분 한 번의 수술로 교정되지만, 일부 복잡 심질환은 여러 단계의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 위험도가 높거나 뇌출혈 등 동반 문제가 있는 경우, 다음 단계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준비 단계의 수술'을 먼저 시행한다. 최근에는 신생아 수술 및 중환자 관리가 발달하면서 복잡 심질환을 가진 신생아에게도 '완전 교정술'을 시행하는 추세다. 심각한 선천 심질환은 질환 종류에 따라 출생 직후 응급 검사 및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분만 전 후에 전문의와 면밀히 상담해야 하며, 선천 심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김우중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정형외과 교수

운동선수들에게 흔한 정강이 안쪽이 당기는 듯한 통증은 '내측경골 피로증후군'의 주 증상이다. 내측경골 피로증후군은 달리기나 점프 등의 운동을 많이 하는 종목(농구, 축구, 마라톤 등)의 선수나 일반인, 훈련을 많이 하는 군인에게서 매우 흔하게 발생한다. 유병률은 달리기 선수는 13.6~20%, 군인은 35% 이상이다.

정강이뼈 전체가 애매하게 아프면

주로 정강이뼈의 안쪽 경계부를 따라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한다. 통증의 양상은 국소적이지 않고, 부위가 전체적으로 모호하게 아픈 분산형이다. 위치는 정강이뼈를 삼등분했을 때 위 3분의 2지점과 아래 3분의 1지점의 경계에서 많이 발생한다. 보통 준비운동을 한 후에는 통증이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국소적인 통증이 있을 때는 피로골절을 더 의심해 볼 수 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 후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 휴식하면 통증은 조금 줄어들지만 다음날 아침 다시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통증은 정강이 뒤쪽 근육(후경골근, 가자미근, 장족지굴곡근)에서 기인한다.

원인은 정강이 뒤쪽 근육 과사용

발생요인은 과사용, 과거 내측경골 스트레스증후군(MTSS)을 겪은 사람, 심한 평발, 잘못된 트레이닝, 근육기능 이상, 신발 형태, 운동하는 사람의 피로도나 유연성, 골반의 운동 범위, BMI가 높은 사람, 이전의 피로골절의 유무, 잘 맞지 않는 보조기 사용, 골밀도 등 다양하다. 특히 운동할 때 가자미근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고도 밝혀져 있다. 내측 가자미근은 운동하는 동안 발을 발바닥 쪽으로 굴곡 시키고, 내번(inversion)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자미근 과사용은 정강이뼈의 후면 내측 경계부에서 골막 부착부에 만성적인 견인을 유도해 내측경골 피로증후군을 일으킨다.

휴식하며 긴장 풀어주고, 두꺼워진 부위 치료를

치료의 목적은 위험요인을 배제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다. 휴식, 얼음찜질, 소염제로 치료를 시작한다. 통증이 없는 크로스 트레이닝(수영, 사이클 등)으로도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열치료와 월풀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근육을 풀어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순환을 촉진시킨다. 하지만 염증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충격을 흡수하는 깔창 사용이나 근육의 장력을 조절해 주는 테이핑도 도움이 된다. 전체적인 종아리의 긴장을 풀고, 국소적으로 두꺼워진 부분의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연부조직 테크닉)도 시행한다. 하지만 허혈성 지압(distal ischemic pressure)은 근육(가자미근, 장족지굴곡근, 후경골근)이 뼈에 부착하는 곳에 가하고, 골막이 부착된 부위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횡마찰 마사지(transverse friction)는 근육이 국소적으로 두꺼워진 부위에 시행할 수 있다. 물리치료로는 전기적 자극, 이온영동법(iontophoresis), 초음파 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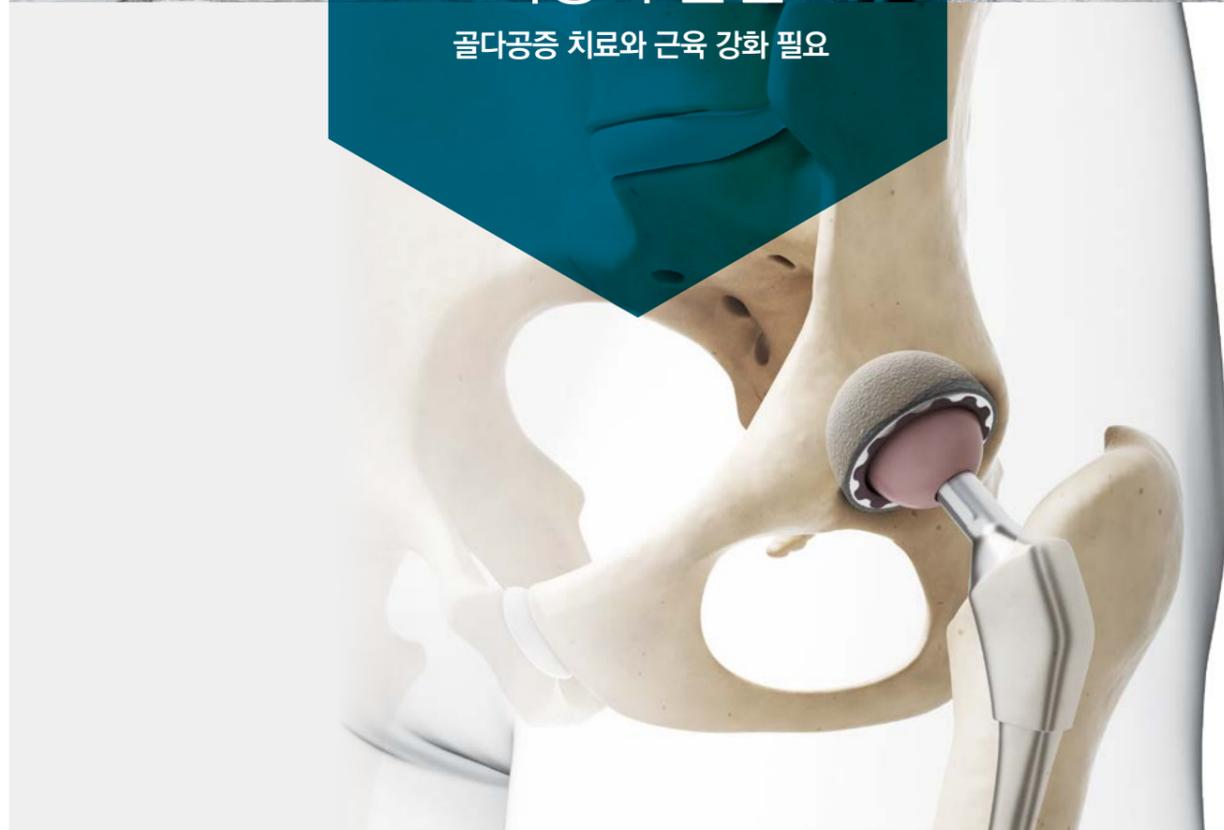
족부 전문의와 함께 피로골절 진행 막아야

충분한 휴식과 올바른 활동을 통해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모든 환자는 아니지만 일부 내측경골 피로증후군 환자가 피로골절로 진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족부 전문의사를 통해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의 활동이 위축되고 운동부족으로 근육의 강도와 유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부상이 의심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치료로 피로골절 진행을 막아야 한다. 또한 올바른 운동방법도 배워 부상이나 통증 없이 운동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가운데 건강한 일상을 영위하기 바란다.



노년의 최대 위험은 낙상과 골절

골다공증 치료와 근육 강화 필요



장병웅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정형외과 교수

UN은 2015년에 평생연령 기준(age group classification)을 재정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0-17세 미성년자(minor)에서 18-65세 청년(youth), 66-79세 중년(middle-aged), 80-99세 노년(elderly/senior)을 거친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long-lived elderly)이라 한다. 말 그대로 100세 인생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다공증 치료와 함께 낙상 예방이 중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고령사회의 진행에 따라 국내 고관절 골절 발생 환자는 2016년 연간 3만5천여 명에서 2025년에는 5만1천여 명으로 10년 간 약 1.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관절 골절은 대부분 저에너지 낙상 사고로 발생하며, 미국 가정의학과 의사협회지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 사망 원인의 70%가 낙상사고 후 사망이라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노인환자에게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약 16-17%에서는 1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노인의 경우 골다공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 근력, 균형감각 및 반사 신경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낙상할 위험이 매우 크다. 낙상 사고를 당하면 젊은 환자에게서는 상대적으로 손목, 팔, 어깨 등 상체에 부상이 집중되지만, 고령 환자는 근육량이 적고 반응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손을 짚어 몸을 보호하지 못하고 엉덩방아를 찧는 경우가 많아 고관절 골절로 이어진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이 더욱 심해져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고관절 골절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골다공증 치료와 함께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무분별한 다이어트로 인해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여 젊은 인구에서도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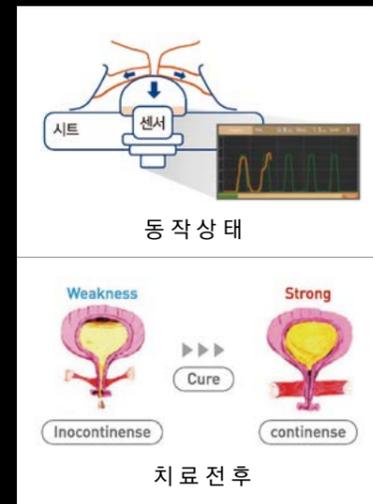
과도한 음주, 흡연 등도 골밀도 감소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력과 균형감을 키워야 한다. 또한, 폐경 후 여성은 호르몬 변화를 겪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하여 골다공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안에서 화장실이나 거실에 물기를 없애고 외출할 때는 굽이 낮은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오르막 계단을 이용할 때는 난간을 잡고, 독립적인 보행이 수월하지 않으면 보행기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국내 연구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관절 골절환자 3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골다공증 및 근감소증을 동시에 가진 환자의 1년 사망률은 15.1%로 골근감소증이 없는 환자의 사망률인 7.8%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들은 골다공증 치료와 근육의 양과 질을 높여야 한다. 일본의 '100세 현역 의사'로 유명한 히노하라 박사는 자신의 건강관리 비결 중 "노년 건강의 최대 위험은 낙상과 골절이다. 넘어질 것 같으면 구르는 연습을 해라" 고 제안하며 매일 밤 스스로 이불 위에서 구르고 넘어지는 연습을 하였다고 한다. 히노하라 박사와 똑같은 방법을 택하지는 않더라도 고령사회에 맞추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낙상과 골절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바이오피드백 장치 Bio-Feedback Device

과민성방광, 빈뇨, 요실금, 배뇨장애, 변비, 변실금 치료 장비
간편하면서 효과적인 비삽입형 바이오피드백



환자의 골반저근에 근력운동을 위해 필요한 최적 무게를 센서로 감지하면서 옷 입은 상태로 케겔운동을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유도해 빈뇨, 절박뇨, 과민성 방광, 요실금의 치료 및 재활을 시킬 수 있는 장비이다. 특히 전립선암 수술 후 약해진 괄약근의 재활에도 사용 되어 진다. 옷을 입은 상태로 바이오 피드백을 시행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의 순응도가 높으며 치료효과 또한 뛰어나다.



의료원 / 순천향대 / 의대동창회



창의라이프대학원 메디컬경영서비스학과, 온라인 학위과정 선정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 창의라이프대학원 '메디컬경영서비스학과'가 2월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에 최종 선정됐다.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은 원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체 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순천향대는 온라인 교육을 통한 메디컬서비스 분야 종사 학습자들의 교육 접근성 강화에 주목해 4개 대학병원의 의료인프라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의료행정 전문성을 갖춘 경영관리자를 양성하고, 교수자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전문가가 함께하는 '버디티칭'의 특화된 교육 방식을 활용해 현장 실무형 글로벌 인재 양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에 25명 합격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올해 25명의 경찰공무원을 배출하며 우리나라 경찰 인재 양성의 산실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는 최근 5년간(2016~2020) 순경 136명, 경찰간부후보생 4명을 배출했다. 경찰공무원 외에도 지역인재(7급) 3명, 검찰직, 보호관찰직 등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해 우리나라 경찰 인재 양성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한편, 순천향대가 위치한 충남 아산은 국립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등이 위치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경찰교육의 메카다. 순천향대는 경찰교육의 내 다양한 경찰교육 전문가관과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펼치며 학생들의 전공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미래 혁신 인재 2384명 배출...학위수여식 대체 기념행사

순천향대학교가 2021학년도 학위수여식을 대신해 졸업 축하 영상을 대학 홈페이지와 SNS에 공개해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17일 순천향대에 따르면 이번에 배출된 2384명의 미래 혁신 인재에 대한 학위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캠퍼스 활동 보장을 위해 비대면 축하 메시지와 단과대학별 기념 서비스로 대체했다. 대학은 교내 곳곳에 축하 현수막을 게시하고 단과대학별 학위 가운 대여와 포토 존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 수령이 어려운 졸업생들에게는 우편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배출된 졸업생은 학사 2137명을 비롯해 일반대학원 석사 98명, 교육대학원 석사 81명, 건강과학대학원 석사 16명, 법과학대학원 석사 7명, 미래융합대학원 석사 7명, 박사 38명 등 총 2384명이다.



순천향대,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순천향대학교는 5년 만에 학사와 석사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과정은 대학원 교육과정을 학사학위 과정과 연계해 졸업학점을 취득함으로써 두 과정의 수업 연한을 각각 1학기씩 단축해 5년 안에(학사 3.5년 + 석사 1.5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운영학과는 5개 계열, 49개 학과로 △교육학과, 국제통상학과 등 인문사회계열 11개 학과 △환경보건학과, 작업치료학과 등 자연과학계열 9개 학과 △체육학과, 연극영화학과 등 예체능계열 3개 학과 △모빌리티융합보안학과, 의료IT공학과 등 공학계열 14개 학과 △경찰학과, 의과학과 등 학과 간 협동과정 12개 학과 등이다.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신장센터 새 단장, 모자보건센터2층 리모델링 완료



서울병원이 모자보건센터 건물 2층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소아청소년과와 신장센터가 새 공간에 입주했다. 소아청소년과는 기존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한 독립된 공간으로

진료실 5개, 상담실 2개, 검사실 3개(알레르기호흡기검사실, 심장초음파검사실, 신체계측 인바디실), 육아지도회, 주사실, 수유실을 갖췄다. 입구에서부터 오픈된 3개의 기둥을 활용해 접수와 대기 공간을 라운드형으로 디자인하고, 아기자기한 소품과 동물 그림 액자, 원숭이 조각인형을 배치해 어린이들을 배려했다. 신장센터는 기존 모자보건센터 1층에서 2층으로 확장 이전했다. 6개의 침상을 한 구역으로, 총 5개 구역에서 36병상을 운영한다. 한 구역은 별도로 분리하여 감염병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설계했고, 일반격리실 2개(3병상)와 복막투석실 1개, 전실을 갖춘 음압투석실도 갖췄다. 신장센터만의 독립된 공간을 단독으로 운영하여 환기와 감염관리에도 문제가 없도록 설계했다.

고령 환자 척추수술 결과 예측에 노쇠와 근감소증 중요 박형기 신경외과 교수팀 논문 발표



나이가 많은 고령 환자는 척추수술 후 결과 예측 시 근감소증과 노쇠정도, 동반질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박형기 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팀이 최근 '근감소증, 노쇠측정도구, 동반질환을 이용한 척추 수술환자 예측 예측에 대한 연구' 논문을 대한신경외과학회지(J Korean Neurosurg Soc. 2021;64(6):995-1003. Published online October 7, 2021)에 발표했다.

회귀분석 결과 수술 후 합병증은 외과적 침습성과 노쇠 척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재원 기간은 역시 외과적 침습성과 찰수동반지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박형기 교수는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령층에서의 퇴행성 척추질환 발생률도 높아지고, 수술도 늘고 있다"며 "고령 환자의 척추 수술 전에 결과 예측 시 노쇠와 근감소증을 이해하면, 수술 후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병원 다짐, 안전사고예방 결의식

서울병원(병원장 이재재)은 2월 18일 이현옥홀에서 '안전사고 예방 결의식'을 개최했다. 결의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규정도 잘 준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기하자'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서우성 의료원장과 이정재 병원장, 협력 및 도급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 안전책임자인(CSO) 박태성 사무처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안전보건책임자인 이정재 병원장의 결의문 서명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안전사고 예방 결의문에는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소통을 통해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공유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행복한 일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5α-환원효소억제제, 전립선암 관련 사망률과 무관 박재준 비뇨의학과 전공의 국제학술지 논문 발표



5α-환원효소억제제(5α-reductase inhibitor, 이하 5-ARI로 표기)가 전립선암 관련 사망률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재준 순천향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전공의는 2019년 7월까지 펩메드(PubMed)와 엠베이스(EMbase), 코크란(Cochran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포괄적인 문헌 검색으로 이 같은 이론에 대해 연구했다. 11개의 연구 논문을 메타 분석한 결과 5-ARI 치료군과 대

조군 사이의 암 관련 사망률 및 전체 사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박재준 전공의는 "본 연구를 통해 5-ARI의 사용과 전체 사망률 또는 암 관련 사망률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없음을 관찰했다"며 "향후 대규모 표본을 사용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는 국제 학술지 'The aging male'에 '양성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5α-환원효소 억제제 약물 투여 후 전립선암 특이치사사망률:체계적 검토 및 메타분석'이란 제목으로 2021년 12월 21일 게재되었다.

로봇수술 1천례 기념 심포지엄 개최



서울병원(병원장 이재재)은 2월 9일, 로봇수술 1천례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정식 산부인과 교수가 로봇 수술 보고 및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김재현 비뇨의학과 교수와 조성우 외과 교수, 변형권 이비인후과 교수가 각각 로봇 수술 경험에 대해 발표했다. 이광우 순천향대부천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부천병원 로봇 수술 1천례 현황과 미래에 대해 발표했고, 허민지 과장은 '인튜이티브 서지컬 차세대 전략'을 발표했다. 2017년부터 로봇수술을 시작한 순천향대서울병원은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각종 암 수술을 비롯해 다양한 질환에서 로봇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부천병원



김병성 정형외과 교수, 제6대 대한말초신경수술학회장 취임

김병성 정형외과 교수가 '제6대 대한말초신경수술학회'에 취임했다. 임기는 올해 12월까지 1년간이다. '대한말초신경수술학회'는 말초신경 질환 치료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간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2016년 9월 26일 창립됐다. 김병성 교수는 현재 부천병원 외과계 진료부장 및 수부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수부외과 및 미세수술외과 분야를 전문 진료한다. 또,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수부외과학회, 대한말초신경수술학회, 대한관절경학회 등에서 왕성한 학회 활동을 해왔으며, 대한수부외과학회 고시위원장, 대한관절경학회 평의원, 대한정형외과학회 진단장애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이영환 응급의학과 교수,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이영환 응급의학과 교수가 경기도 구급활동 질적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영환 교수는 2016년부터 약 6년 동안 과천소방서와 광명소방서의 자문 의사로 활동하며 119 구급활동 자문 및 구급대원 전문교육, 의료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영환 교수팀은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영상통화 기기로 현장 영상을 보면서 119 구급대원 및 응급구조사에게 실시간으로 적절한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영상통화를 이용한 119 구급대원 직접 의료지도 시범사업'을 수행해 구급대원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도왔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최종 지정

부천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 첨단재생의료 관련 임상 연구 활성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0년 8월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야만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부천병원은 지난해 조건부 지정을 받은 이후, ▲시설 ▲장비 ▲인력 ▲표준 작업 지침서 등 지정기준을 충족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최종 지정됐으며, 앞으로 ▲세포치료제 ▲조직공학체제 ▲유전자치료제 ▲첨단바이오통합체제를 이용한 환자 치료와 임상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감염병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부천병원이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경기도 감염병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 경기도 소재 상급종합병원 5곳(순천향대 부천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참여했다. 협약 참여기관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방법 공유', '병상-자원 공동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천안병원

코로나 검사 전 화상진료 '호응'



천안병원이 실시 중인 코로나19 안심진료소 화상진료가 이용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화상진료는 병원의 코로나19 안심진료소와 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실을 화상카메라로 연결해 비대면 진료하는 것이다.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우선 안심진료소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병원은 성인의 경우 안전한 환경을 갖춘 진료실에서 대면 진료를 실시하지만 소아청소년은 화상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화상진료 실시 환자 수는 월 평균 100여명이다. 고화질 화면을 통해 진료하는 화상진료시스템은 병원의 전자무기록(EMR)과도 연동돼 진료교수와 환자가 동시에 검사 및 진료기록도 볼 수 있다.

안전한 병원 만들기 다짐



천안병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안전한 병원을 위한 선언식'을 개최했다. 2월 7일 오전 8시 병원 강당 송원홀에서 열린 선언식에는

병원 임직원들 외에도 새병원 시공사인 한화건설을 비롯해 정성디앤엠, 현대씨앤알, 캡스텍, 아마노코리아 등 용역업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함께 안전 선언문을 낭독하며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결의했으며, 선언식 후에는 안전캠페인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주요 시설의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앞으로 병원은 매일 실시하는 진료환경 안전점검 외에도 매주 도급 작업장의 안전점검도 실시해 유해, 위험 요인을 능동적으로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천안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첨단바이오 융복합치료 등 살아있는 세포 등을 이식해 손상된 인체조직을 대체하거나 재생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술이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첨단재생바이

이비인후과, 청각장애인 의료지원 '훈훈'



천안병원 이비인후과 의료가 한 청각장애인의 수술과 재활을 도와 주위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도움을 받은 환자는 충남 예산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박미자 할

머니(72세). 박 할머니는 5살 즈음에 청력을 완전히 잃었다. 글도 모르는 할머니에게 유일한 소통창구는 남편. 하지만 지난해 봄 남편마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할머니의 걸을 떠났다.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우리병원 이비인후과는 할머니의 청각재활을 돕기로 하고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담당했다. 고액의 수술비는 병원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주선으로 청각장애인 후원단체인 '사랑의달팽이'가 후원했다. 사랑의 달팽이는 측은 수술비는 물론 재활치료비, 생활비까지 지원했다. 천안병원 관계자는 "박미자 할머니는 지난해 7월 수술을 마치고, 현재 작게나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도 청각 및 언어재활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동조합, 새병원 건립 발전기금 2억원 기탁



천안병원 노동조합(위원장 최미영)이 학교법인 동은학원(이사장 서교일)에 2억 원의 새병원 건립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서교일 이사장과 최

미영 노조위원장은 2월 22일 오후 천안병원 병원장실에서 기금 전달식을 갖고 새병원의 성공적인 건립을 함께 기원했다. 최미영 위원장은 "안전하고 차질 없는 새병원 건립을 바라는 1700여 순천향대천안병원 조합원들의 간절한 기원을 담아 기금을 전했다"고 말했다. 서교일 이사장은 기금에 감사를 표하며, "성공적인 새병원 건립으로 천안병원 조합원들의 기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새병원 건축은 지하층 굴착 및 골조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오법과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부합된 시설, 장비, 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고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미래 핵심 의료기술인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 활성화, 산업발전, 기술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27개소와 종합병원 7개소를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선정했다.

구미병원



제21·22대 병원장 이·취임식

구미병원은 12월 29일 오후 병원 향설교육관에서 제21·22대 병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취임식은 서교일 이사장(학교법인 동은학원)과 서유성 중앙의료원장을 비롯하여 주요보직자와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제22대 병원장 정일권 교수(소화기내과), 부원장 양승부 교수(영상의학과)가 취임하였다. 임기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지침에 따라 행사를 축소해서 진행했으며,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교직원을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하였다. 정일권 병원장은 “설립이념인 인간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며, 급변하는 시기에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북중서부권 최고의 거점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교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익명 기부자, 구미병원 취약계층 환자에 800만원 기부

구미병원은 1월 3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는 익명의 기부자가 취약계층 환자들의 치료비로 사용해 달라며 현금 800만원을 병원에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기부자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따스한 나눔을 전달하고 싶어 가족끼리 여행경비를 위해 모았던 것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쓰고자 결심했던 것이다”고 밝혔다. 또 기부자는 수도권에 후원할 단체를 찾던 중 지방 병원에 취약한 환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여겼고, 무엇보다 순천향구미병원 사회사업실과 상담결과 지원환자 발굴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체계적이며 투명한 기부시스템이 신뢰할 만 했다고 전했다.



저소득층 외래비 지원사업, 구미시와 MOU 체결

구미병원은 2월 15일 구미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구미시와 의료취약계층 환자들을 위한 “저소득층 외래비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정일권 병원장, 양승부 부원장(순천향대 구미병원)을 비롯하여 장세용 구미시장, 변동식 사회복지국장(구미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사업은 각종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어 병원진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취약계층의 외래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순천향 구미병원 교직원들과 개인 후원금을 재원으로 외래 검사 및 치료비를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지역민(실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 ▲장애인 ▲외국인 등으로 순천향 구미병원 외래 검사 및 치료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실비보험 대상자는 제외 된다. 지원신청은 지역사회기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빠른 심의를 거쳐 지원이 결정 된다.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지역유일 4회 연속 최우수 S등급 획득

구미병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1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인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4개 분야(▲특수건강진단의 관리 ▲결과 및 판정 등에 대한 신뢰성 ▲장비보유 현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사후 관리의 절차 및 관리) 항목 및 행정처분 이력 등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2021년에도 S등급을 받아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4회 연속 최우수 S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수건강진단은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수준의 향상을 위해 2년 마다 평가를 실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SCH NETWORK

‘인간사랑 정신과 의료의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합니다’

SCH 서울병원
www.schmc.ac.kr/
02-709-9114



SCH 부천병원
www.schmc.ac.kr/bucheon
032-621-5114



SCH 천안병원
www.schmc.ac.kr/cheonan
041-570-2114



SCH 구미병원
www.schmc.ac.kr/gumi
054-468-9114



순천향대학교
www.sch.ac.kr



 **SCH**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SOONCHUN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9  772234 103000  03 >
ISSN 2234-103X